

정치문화와 부패

Political Culture and Corruption

백 완 기 (Paik, Wan Ki) *

I. 부패에 대한 문화적 개념의 중요성

인간이 모여사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선진사회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그 정도가 심하다 못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흔히 부패하면 정치나 행정 또는 공직사회의 부패만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 단면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에서의 부패는 사회 전면에 깔려 있어 어느 구석 하나 깨끗한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패를 다스리는 기관까지 부패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기관일수록 더욱 썩고 부패하였다는 것이다.¹⁾

다시 언급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치분야를 위시해서 모든 분야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부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국 사람이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부패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체질을 타고 났는가? 아니면 법이나 제도가 부패를 조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육이 부패를 키우고 있는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국인의 종자가 생물학적으로 태어 나면서부터 부패에 물들기 쉬운 종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법규나 제도도 부패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구석이 없다. 오히려 우리 법규와 제도는 어느 나라의 그것들 보다 엄하게 부패를 다스리는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政·博)

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공안행정분야와 치안행정분야가 가장 부패가 심하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건전도측정에 관한 연구』, 1989. 10, p. 17; 윤태범, 『한국 관료 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제3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p. 108.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조상은 황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알라고 교육을 시켰고 청렴과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러면 어디에서 부패가 연원되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부패의 뿌리가 무엇이나 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패의 원인과 뿌리는 문화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한 마디로 우리의 문화가 부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²⁾ 우리의 문화는 부패의 균이 서식하기에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난 부패는 구조화 되고 관제화 되어 한 문화권의 특성을 이루는 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패의 악순환이다. 그러면 한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부패현상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검토하기 전에 부패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부패의 개념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다. 관직의 매매도 시대에 따라 부패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였다. 17세기 영국사회에서의 관직의 매매는 불법적 행위도 아니었고 부패도 아니었다.³⁾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불법이요 부패행위이다. 이처럼 부패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공간에 따라 성립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기도 하다.⁴⁾

부패에 대한 개념과 여기에 대한 접근방법도 수없이 많다.⁵⁾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아도 부패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다르다. 예컨대 우리사회에서 좋은 자리에 있을 때에 친구나 고향 사람을 잘 보아 주는 것이 부패나 아니냐 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어쩌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정서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부패의 정체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 개념규정이 어렵다. 여기서는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단지 부패는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가치를 배분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부패지만 인사권자가 연고관계로 승진시켜주는 행위나 정책결정자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급에 특혜를 주는 행위도 부패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2) 한국의 부패를 문화의 시각에서 다룬 논문으로 전수일, "관료부패연구: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 18권 1호, 1984, pp. 143~63 ;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3, 제 15장 등이 있다.

3) 한준상, "교육계의 비리와 병리", 임종철 외,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대 출판부, 1994, p.92.

4) James C. Scott,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Prentice-Hall, 1972, p.13.

5) 박병석, "정치비리 - 정치자금의 수지과정을 중심으로 -", 임종철 외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 5~7 참조.

6)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시각에 개념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들면 A. J. Heidenheimer,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mparative Analysis, Holt, Reinhart and Winston, 1989, pp.4-6 ; 전수일, "관료부패연구: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vol. 18, 1984, pp. 145~160 ; 전수일, 『관료부패론』, 선학사, 1996, pp.14-40 ; 김해동,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vol. 2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p. 162 ;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3, pp. 29~33 ; 윤태범, 전개 논문, pp. 16~48.

흔히 부패하면 사회기강을 무너뜨리고 정의의 싹을 말라 비트러지게 하고 선악의 구별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부패에는 긍정적 기능의 측면은 없는 것인가?⁷⁾

어떤 학자는 부패는 근대화 과정에서 필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이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⁸⁾ 우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지 모른다. 과거 30여 년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발전이라는 것도 깊이 따져 보면 부패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질지 모른다. 왜냐하면 부패정권 속에서 경제성장의 기적은 일어 났기 때문이다. 부패가 경제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패는 사회를 보다 다이내믹하게 하고 특히 무사안일과 나태에 빠져 있던 관료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기동화시켰다는 것이다.

II. 情의 문화

부패문화의 제 1차적 요소가 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문화는 정과 한의 문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김주희는 정의 근원을 ‘품앗이’로 보고 이것의 특징은 주는 행위, 받는 행위, 그리고 갚는 행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품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호의, 은혜, 자비등의 형태를 취하며 물질적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정은 가족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은 자기의 자아(myself)와 타인의 자아(other's ownself)가 결합된 상태로서 이것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상호내포성(inclusion), 밀착성(intimacy), 신의성(fidelity) 및 전체적 결합성(total involvement)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7)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일, 『관료부패론』 석학사, 1996, pp. 69~84 ; 김영종, 『부패학』, 개정증보판, 숭실대 출판부, 1993, pp. 5-6 참조.

8)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 58~62 ; "Modernization and Corruption", in Arnold J. Heidenheimer(ed.), Political Corruption,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0, pp. 492~500 ; David H. Bayley,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N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XIX, No. 4, December, 1966, pp. 719~732.

9) 김주희,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집문당, 1992, p. 85. 10)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 출판부, 1982, p. 72.

10)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 출판부, 1982, p. 72.

정은 부패의 온상이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잘못 처리된 정은 더욱 그러하다. 질서있게 처리된 정은 인관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된 정은 모든 최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은 그 속성상 질서있게 처리되기가 어렵다. 한국 공무원들에게 청탁행위에 관여하게 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첫번째가 의리관계(43.41%)요, 두번째가 금전적 욕망(23%)이라고 답변하고 있다.¹¹⁾ 공직사회의 부패도 제 일차적 요인이 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대개가 끈끈한 정으로 엮여져 있다. 사람들은 정으로 맺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저사람과 나와의 정이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감에 떠난다. 한국사회에서 정이 없다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발붙일 곳이 없다. 이러한 사람은 상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은 인간생활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소중한 값진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이 거둬 말하지만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피하면서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호소하기 때문에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 속성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음으로서 서로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주고 받음은 물질로서도 연장된다. 정이 많은 사람은 나누어 갖고 나누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콩 한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자는 것은 정 많은 사람들의 생활습관이다. 정이 많은 사람들은 생산이나 창조보다 분배와 유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주고 받는 선물문화가 발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문화가 부패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선물문화가 부패문화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관혼상제를 축하나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보다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또 결혼식때 신랑 신부가 분에 넘치는 혼수와 선물을 준비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능력에 넘치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모두가 부패문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의 문화는 정의 표시를 강조하는데 이것이 물질이건 정신이건 부패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관계가 아닌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사람은 야박하고 냉혈적인 인간으로 취급 받는다. 이처럼 이해관계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 야박한 이해관계는 질서로 승화될 수 있지만 정의 관계는 질서로 승화되기가 어렵다. 정은 그 자체가 맹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측성을 결하고 있다.¹²⁾ 따라서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정의 관계요, 되어야 할 일이 안되는 경우도 정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은 이처럼 객관적 질서를 거부하고 있다. 허쉬만(Albert O. Hirschman)같은 이는 사람을 몰입시키고 변덕스럽게 하고, 그런가 하면 쉽게 사그러들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

11) 전수일, 『관료부패론』, 1996, pp. 199~200.

12) 백완기, 『민주주의 문화론』 나남, 1994, p. 97.

것을 잡을 수 없는 정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³⁾ 정은 객관적 질서형성을 가로 막고있고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은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질서가 형성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인간의 주관적 자의성이 횡행하고 이것은 바로 부정과 부패를 불러 들인다.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로 정으로 길들여진 사회화 과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정은 끼리 끼리의 끈끈한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끼리 끼리의 정은 폐쇄성과 배타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네들끼리 도와 주고 보살펴 준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정은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끼리 끼리는 결속과 유대를 다지지만 바로 끼리 끼리이기 때문에 분파성과 분열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의 분파성과 분열성을 바로 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있을 때에는 분파가 일어나지 않지만 세 사람이 있을 때에는 두사람이 한 사람을 돌리고 소외시킴으로서 분열성이 일어난다. 이러한 식으로 사람의 수가 늘어 날 수록 분파성과 분열성은 핵분열식으로 가속화 된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분파성을 띤 무수한 소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당의 총재 밑에는 무수한 계파들이 도사리고 있다. 조선조의 당쟁을 통한 당파분열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하여 준다. 몇사람 되지 않던 지배관료들은 파에서 파가 갈리고 또 그 속에서 파가 갈려 거의 핵 분열현상을 이루었다.¹⁴⁾ 이러한 분파성은 따지고 보면 주의 주장보다는 정문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은 이처럼 결속성과 분파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¹⁵⁾

이러한 결속성과 분파성도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과 정의관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합집산이 된다.

정은 신의와 충성을 다짐한다. 그런데 이때의 충성도 국가나 조직이나 객관적 질서에 대한 충성보다는 개인에 대한 충성이다.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었던 충성도 임금이나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었지 국가나 조직에 대한 충성은 아니었다. 개인에 대한 충성이다 보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키워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정당들이 정당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정치

13) Albert O. Hirschman, *The Passion and the Intere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 52.

14) 선조 초기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렸다. 그러다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렸다. 북인은 대북 소북 골북으로 갈린다. 남인은 청남과 탁남을 나누어 진다. 서인의 경우를 보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린다. 노론은 다시 시파와 벽파로 나누어 진다.

15) 이지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정치문화나 행정문화에서 공동체 의식과 분파성은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과 분파성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동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정의 문화와 뒤에 설명할 특수주의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지훈, 『한국정치문화와 정치 참여』, 형설출판사, 1989, pp. 31~35, pp. 90~96.

지도자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일삼는 것은 이러한 개인에 대한 충성심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내에서의 충성심도 마찬가지다. 직업이나 자기가 맡은 역할이나 직무에 대한 충성보다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사에 충성심이 강조되고 중요시 된다. 상사의 입장에서 직무에 대해서 충성심을 발휘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개인에게 충성심을 발휘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고 더욱 소중히 여긴다. 여기서 조직 구성원들은 직무나 역할에 대한 충성보다는 상사를 중심으로 충성심경쟁을 벌인다. 여기서 승진이나 공천 등의 혜택은 능력중심보다는 충성심의 강도로 결정된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비리요, 부패인 것이다.

정의 문화는 공개적인 경쟁을 싫어하고 은연 중에 회생을 요구한다. 부패는 공개성과 경쟁성 속에서 서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의와 회생 속에서는 활개를 치면서 서식할 수 있다. 정은 그 자체가 은밀하고 내면적인 것을 좋아하지 공개적이고 외면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은밀한 것을 좋아 한다는 것은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숨겨지고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부패는 싹트고 잘 자라기 마련이다. 서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의와 회생 속에서는 활개를 치면서 서식할 수 있다. 정은 그 자체가 은밀하고 내면적인 것을 좋아하지 공개적이고 외면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은밀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숨겨지고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부패는 싹트고 잘 자라기 마련이다.

정이 부패와 바로 직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의 맹목적성과 무조건성에 있다. 정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싫어하고 위에서 이야기 한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거부한다. 친구라면 무조건 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가 아무리 죄를 저도 친구이지 친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사리를 따지고 시비를 가리면 이미 친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좀 모자르고 부족해도 봐 주어야 하고, 비록 죄를 졌어도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의 논리이다. 정은 이처럼 연줄을 타고 객관적인 질서를 파괴시켜 버린다. 우리사회에서 법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법질서가 보편화되지 못한것은 바로 정의 문화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은 무조건성, 맹목적성, 회생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힘을 동원한다. 본래 정의 관계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전 인격대 전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얽어진 관계때 보다 몇배의 힘을 동원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목표성취를 위해서 인적, 물적자원이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한달에 걸쳐서 할 일도 보름에 해치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30여년동안 근대화 치적을 쌓아 올리는데 정의 문화도 적지 않게 공헌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은 과도기적 현상이지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은 용서의 힘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서는 무조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부정과 부패를 불러 들일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Ⅲ. 권력지상의 문화

필자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본 일이 있다. 돈 10억불을 가질래? 노벨상을 탈래? 아니면 대통령이 될래? 돈 10억불을 갖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노벨상을 타겠다는 사람은 몇사람 있었고 나머지 전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되면 돈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돈과 명예를 다 보장하고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도 나도 권력을 위해서 줄달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감투지향주의나 지위정향적(position-oriented) 사고는 권력지상주의와 표리관계에 있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권력에 대한 집념이 유달리 강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 하면 권력에 걸신들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길래 이승만씨나 박정희씨 같은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 하면서까지 권력을 종신토록 누리려고 하였고, 권력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그 티를 내고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려고 한다. 하다못해 아파트 수위만 되도 손님들에게 목에 힘을 주고 대할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곳에 필히 부패가 동반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러한 성향을 지닐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좀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지상주의 문화 속에서는 깨끗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향해서 기를 쓰고 덤비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권력지상주의는 「권력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갖게 한다.」는 권력만능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이나 관직이권주의는 권력지상주의의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도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버는 것보다 권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기업을 하는 경제인들도 비용·효과의 비교분석인 경제논리보다는 권력을 매체로 한 정치논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기업을 하는 경제인들도 비용·효과의 비교분석인 경제논리보다는 권력을 매체로 한 정치논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쉽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인들은 권력의 주변을 맴돌기 마련이다. 기업의 정치자금제공도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들은 모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에게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야당에게는 주지 않는다. 주고 싶어도 집권당의 권력이 무서워서 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정기탁된 정치자금의 내역을 보면 전부 여당의 몫이지 야당의 것은 하나도 없다. 집권당의 권력이 무서워서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

은 권력을 가까이 함으로서 보다 좋은 기회를 포착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보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서도 가까이 할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에 잘못 보이면 살아 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또 높고 낮은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길려고 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풍속도이다. 여기서 높은 자리나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 나오면 평생 먹고 살 것이 생긴다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모두가 권력의 자리에 게걸스럽게 덤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권력은 아직도 별거벗은 모습으로 원시상태에 머물러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 마디로 세련된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이기 때문에 부패와 결탁될 성향도 강하고 또 폭력으로 돌변할 위험성도 크다. 우리 사회에서의 권력의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첫째, 권력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선한 모습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 또는 계층을 위해서 사용되는 악의 성향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하기도 악하기도 한데 우리의 권력은 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권력혐오증과 권력불신증을 불러 일으킨다. 권력혐오증이나 권력불신증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민주질서가 탄생되기 어렵다. 권력은 비판의 대상은 되어도 부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권력이 부정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질서도 확립되기 어렵다. 우리사회에서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부정과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러한 혐오감과 부정은 권력의 만능성과 횡포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권력의 ‘하나이즘’ 현상이다. 하나이즘 현상은 권력이 한사람으로 집중되고 수렴된다는 것이다. 권력이 한 곳이나 한 사람으로 집중되다 보니 독선성과 교조성을 띠고 절대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폭력화 될 수 있고 잘 못을 저지를 때에 그 파급효과도 이만 저만 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윗사람’ 또는 ‘윗어른’ 하면 만능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윗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뜻 하고 있다. 권력이 분산될 때에 권력은 순화되고 안정성도 갖게 된다. 권력이 독점되고 집중되면 그 폐해가 심하다. 우선 비경제적이다. 자본의 독점처럼 한사람이 독점하여 버리면 양질의 권력이 창출되고 탄생될 기회를 갖지 못한다.¹⁶⁾

권력도 분산되고 다원화 되어야 경쟁을 통해서 양질화 되고 세련되고 순화된다. 권력이 한 사람으로 수렴되고 독점화될 때에 권력은 필히 사인화 되어 버린다. 권력의 사인화는 바로 부패와 직결된다. 권력의 사인화와 비리를 막기 위해서도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

세째, 권력의 근원이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다. 권력의 근원이 인간일 때에 법의 지배현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현실을 들여다 볼때에 법치현상

16) 백완기, 『민주주의 문화론』, p. 173.

보다는 인치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대 이것은 권력의 근원이 아직도 개별적인 인간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법이나 헌법보다는 대통령을 더 무서워 하고, 회사의 정관이나 규칙보다는 창업주를 더 무서워 한다. 법으로 되지 않는 것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면 되는 경우는 바로 인간지배의 현상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은 남용가능성때문에 시비와 공격의 대상이 되는 데 우리사회에서의 권력은 위에서 살펴 본대로 유난히 부패를 탄생시키고 불러 일으키는 자초자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부패의 방지는 권력의 분산과 순화에서 찾을 것이 요구된다.

권력지상주의와 관련하여 권위주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정치문화나 행정문화를 논할 때에 권위주의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만큼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정치문화나 행정문화를 논할 때에 권위주의를 중심개념으로 삼고 있다.¹⁷⁾ 그런데 권위주의는 권력지상주의와 그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으면서도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력지상주의는 부패와 비리에 직결되어 있고 반드시 이것들을 불러들이지만 권위주의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권위주의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부패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지상주의와 권위주의가 다 같이 창궐하면 부패의 토양은 그만큼 비옥해질 것이다.

IV. 특수관계를 강조하는 문화

한국문화의 또 하나의 속성은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인 관계보다는 특수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규범이나 윤리의식도 특수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한국의 전통적 윤리는 가족중심의 농업사회와 유교의五常과 五倫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¹⁸⁾

여기서 인간관계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를 멀리한 채 특수한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것은 이동성이 거의 없었던 농경사회에서 충분히 예기되었던 현상이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인척간, 친구간, 사제간의 윤리만 강조되고 발달하였다. 이것은 이동성이 거의 없었던 농경사회에서 충분히 예기되었던 현상이었다. 따라서 부모자식

16) 백완기, 『민주주의 문화론』, p. 173.

17) 이지훈,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참여』, 형설출판사, 1989; 한배호, 어수영, 『한국의 정치문화』, 법문사, 1987. 18) 김태길, “한국의 윤리문제와 한국인의 윤리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편, 『현대사회의 전통윤리』, 1985, p. 45.

간, 인척간, 친구간, 사제간의 윤리만 강조되고 발달하였다. 보통사람간의 관계보다는 친구간의 관계가 강조되었고 보통사람의 노인보다는 친부모나 친구의 부모를 더욱 소중히 모시는 윤리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로 연장되고 확장되어 지연과 학연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연’을 중심으로 하는 연고주의이다. 우리사회에서 ‘맥’이나 ‘연’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을 이루고 있다. 공직사회만 보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가 부당한 청탁을 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무려 30% 이상의 응답자가 ‘가능한 도와준다’고 답변하고 있다. 부당한 청탁이 부정이요 부패라는 것은 말 할여지가 없다.¹⁹⁾

유권자가 투표에 임할 때에도 그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그 사람이 나와 어떠한 연고관계에 있는가를 따져서 표를 던진다. 다시 말해서 출신지역, 출신학교, 혈족관계를 중심으로 표를 찍는다는 것이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와 연고관계를 따져서 온갖 특혜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여타의 권력자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한 마디로 자기지역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를 학수고대한다.

직장내에서도 채용이나 승진 또는 전보등에서 연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공직사회에서 출세하려면 개인적인 연줄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고 공무원들에게 물었을 때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답변이 43%이고 ‘다소 중요하다’는 것이 51%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6%에 불과하다.²⁰⁾

이처럼 공무원 전체(응답자의 94%)가 연줄은 출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없이 권력이나 이권을 이러한 맥이나 연줄을 통해서 찾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국가나 사회단체의 보호보다는 동창이나 고향사람들을 찾는다. 따라서 맥이나 연은 일종의 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고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정의 문화처럼 결속과 분열을 도시에 조장한다. 결속은 자기네끼리의 배타적 결속이기 때문에 동시에 분열을 일으킨다. 연고주의사회에서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귀속집단에게는 충성심이 강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박약하다. 우리사회의 지역할거주의는 원천적으로 우리의 연고주의 문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단지 정치인들은 이것을 부추기고 이용할 뿐이다. 대통령이 나온 지역에서 엘리트층원이 과다대표되고 개발이나 온갖 혜택들이 편중된다면 지역할거주의는 갈 수록 심화될 것이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지역편중적 엘리트 층원과 개발혜택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²¹⁾ 이러한 연고중심의 특혜현상은 거시적이요 고차원적인 부패요 비리라고 할 수 있다.

19) 전수일, 『관료부패론』, pp. 174~6.

20) 전수일, 『위의 책』, pp. 201~203

21) 여기에 대해서는 안병만, 『한국정부론』, 제2판, 다산출판사, 1989, pp. 185~222.; 한승조, 『한국정

V.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한 사회이다. 선비들은 “황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알라”는 교육 속에서 자라 왔다. 물질의 편안함이나 중요성보다 청빈과 신의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회화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우리의 관료사를 들추어 보면 부정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다. 청빈과 의리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교육을 받아 온 이들은 모두가 청백리로 될 법하였는데 청백리로 선택된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들은 거의 모두가 탐관오리로 돌변하여 버렸다.²¹⁾ 이들은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돌보고 민생을 편안하게 할 생각보다는 관직을 이용해서 치부하고 입신영달할 생각만 하였다.

그런데 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였는데 사회기강은 확립되지 않고 부정 부패만 만연되었을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윤리와 도덕을 강조할 때에 사람들은 사물이나 현실을 존재론적 시각에 인식하지 않고 당위론적 시각에서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이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허구와 위선이 깃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생물학적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도덕적 존재로 이해한다.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이해할 때에 인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도덕적 존재로 파악할 때에는 인간의 본질과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일부를 파악하는데 그친다.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법이나 정책을 제정하고 수립할 때에도 현실과 실존을 무시하고 그 이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허구가 있고 거짓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당위론 속에서 논의되고 수립되기 때문에 기대가능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 허구와 허식 및 명분이 들끓고 부패와 비리가 자리를 잡는다. 도덕은 지키지도 못할 규범이나 형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부정과 부패를 불러 들인다.

물질의 중요성보다 도덕교육을 강조받고 자란 사람들일 수록 물질의 유혹에 더욱 약하고 부패에 감염되기 쉽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어둠 속에서 부정과 야합할 가능성이 더 높

21) 에서 계속

치의 지도자들, 대정진, 1992, pp. 126-7; “한국정치의 권력엘리트”, 김운태의 공저, 『한국정치론』, 제3판, 1994, pp. 555~6; 양성철, 『한국정부론: 역대정권 고위직 행정엘리트 연구』, 박영사, 1994. 문민정부인 김영삼정부에 들어 와서는 권력의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이 전부 부산, 경남 출신들이고 또 이 지역출신들의 중요직 진출이 두드러진다고 지적되고 있다.

22) 조선조 519년 동안 총 218명의 청백리가 나왔다. 이 중에서도 선조조 임진왜란전에 162명이 나왔다. 이현중, 『청백리 정신과 열전』, 아세아문화사, 1977, pp. 7~8 참조.

다.²³⁾ 그래서 아이로니컬한 이야기지만 도덕적 사회일 수록 결국은 황금만능주의가 더 횡행하고 사치와 낭비가 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앞세운다는 서구 사회 어디를 가보아도 황금만능주의나 사치와 낭비의 벽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들은 돈의 소중함을 알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가지고 있지 않다. 물질의 거부속에서 오히려 사치와 황금만능주의가 싹 튼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사회일 수록 부패와 비리가 창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윤리는 부패와 비리를 치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부패와 비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윤리 도덕을 강조한 나라치고 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 중국이 그렇고 우리 한국도 위에서 본대로 그러하였다. 윤리와 도덕은 그만큼 문제해결능력이 없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이고 윤리나 도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조선조의 선조시대 농촌이 황폐화 되어 치유책이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그 당시 조정대신들은 치유책으로 도덕과 향약정신을 들고 나왔다. 이때 율곡은 도덕보다는 경제를 들고 나왔다. 다시 말해서 윤리나 도덕의 정신적인 힘보다는 경제의 물리적인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²⁴⁾

해방 후의 역사만 보더라도 역대의 모든 정권들이 들어서기가 무섭게 부패추방을 예외없이 들고나왔고 그 바탕은 도덕심에 호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박정희는 구악을 일소한다고 외쳤고, 전두환은 정의구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노태우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들이 도덕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고 비리와 부패는 구조화되었고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시대에는 권력형 부패는 극에 달한다.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는 사람들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다시말해서 부도덕하고 사리사욕이 많은 사람일 수록 도덕을 부르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은 항상 악으로 치환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사람들을 떠나서라도 도덕 그 자체가 문제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덕은 본질적으로 당위성(should)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이 없다.

도덕 재무장의 일환으로 충·효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도덕중에서도 충·효는 가장 저질의 도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충에 대해서 잠깐 살펴 보기로 한다. 충을 강조하는 사회일 수록 애국심이 박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교정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에 충성과 국가의식을 강조하는 국가일 수록 애국심이 약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일 수록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이다.²⁵⁾

23)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 출판부, 1982, pp. 100~108.

24) 이 이, 『석담일기』, 윤사순 역, 삼성문화문고, 1983.

25) 예컨대 국가의식을 강조하는 독일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애국심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서정갑, 『부조화의 정치: 미국의 경험』, 개정판, 법문사, 1993, p. 96 참조.

특히 충성은 현대에 와서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다지고 정당화시키는데 종종 악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충성은 악마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에 효에 대해서 살펴 보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강조되는 효는 백해무익이다.²⁶⁾

이때의 효는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자연의 법칙이요, 순리이다. 이것은 비단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적 사랑이나 섬김이 윤리나 의식으로 발전할 때에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깨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지의 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특히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은 자생적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림으로서 결국 사회를 권위주의사회로 몰고 간다.

그리고 효는 가족중심적 결속성과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어 보편성과 개방성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문제가 주로 청소년 자신들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의 부족에서 사회가 험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따지고 보면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들은 그들 자신보다는 어른들과 강압적인 사회교육제도에 연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죄보다 어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사회에서는 공부만 좀 잘못 해도 불효가 되는 것이다. 일류대학에 들어가면 효자났다고 야단들이다.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 하면 일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불효자식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불효자식들로 가득 찰 수 밖에 없다. 우리식의 효는 거의가 다 이러한 식의 효이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다 철이 안들고 불효막심한 놈들이다. 이것은 부모는 항상 옳고 정직하고 바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주변에 이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잘못을 자기들한테서 찾지 않고 아이들한테서 찾으려는 어른들의 모습이 미욱하게 보일 뿐이다. 아이들의 문제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풀어야지 어른들의 입장에서 풀면 영원히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모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효라고 한다면 이러한 효는 강조할 것이 못된다. 특히 자식은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6) 이러한 사상을 개진하는 대표적 학자로 최재석 교수 같은 분을 들 수 있다.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1977. 참조.

27) 예컨대 시묘살이같은 것은 이러한 예이다.

VI.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 문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다. ‘핑잡는게 매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적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속에서는 ‘성공한 구테타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를 얻지 못하면 누구도 알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과정이 우악스럽고 부당해도 결과를 얻으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한다. 되도록이면 거추장스런 과정을 밟지 않고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여기서 불로소득의 생각이 만연하고 벼락출세주의와 한탕주의가 횡행한다. 한탕주의는 돈 버는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구테타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한탕주의요, 빨리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한탕주의다. 이러한 사고가 바로 부패이다.

정당한 방법이 무시되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의 직업도 돈으로 살려고 하고, 미스코리아도 돈으로 되려고 하고, 상도 돈으로 탈려고 한다. 모든 선거에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당선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이다. 목적만 성취되면 되었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방법이나 과정을 정당화하는 사회에서는 우악스러운 힘만 축적되지 정당한 힘은 축적되지 않는다. 본래 땀땀하고 정당한 힘은 정당한 과정 속에서 탄생되고 축적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깨끗하고 정당한 힘보다는 거칠고 우악스러운 힘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지상주의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결과지상주의 문화 속에서는 승자만 있고 패자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패자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한다. 어느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부지하지 못한다. 승자와 패자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 관계이다. 패자도 어느 몫을 차지해야만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 승자의 독식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결국 승자 자신마저 위태롭게 한다.

모든 것을 빨리 취하고 알아야 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얻으려고 할 때에 부실공사와 비리는 나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양질의 작품이 나올 리 만무하다. 양질의 작품이 나올 수 없는 풍토가 바로 부패문화라고 할 수 있다. 돈의 질도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당한 방법을 거쳐서 노력의 결과로 얻은 돈은 값지고 질이 높다. 이러한 돈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윤택하게 한다. 그러나 부정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번 돈은 질도 낮고 혐오의 대상이 되며 사회를 불행하게 만든다. 과정을 중시할 논리적 인과관계에 토대를 둔 양질의 힘이 축적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정을 중시하려니가 번잡스럽고 복잡한 절차와 과정까지 중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은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우리사회에서 행정의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절차가 얼마나 고액인 국민을 불행 하게 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가는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⁷⁾ 여하간 여기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뛰어 넘으려고 하는데서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이나 절차를 필요이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놓아도 부패는 탄생되는 것이다.

VII. 맺는 말

우리는 한국의 부패현상을 문화의 시각에서 살펴 보았다. 문화의 시각에서 살펴 볼 때 부패의 실상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파악된다고 생각한다. 도덕의 부재나 제도의 미비로 부패를 설명하고 진단하려고 할 때에 부패는 그 정체를 잘 드러 내지 않을 것이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데 처방이 효력을 발휘할 리가 없다.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 것은 우리와 같이 썩쉬고 있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다. 부패가 단순히 사리사욕에서 나온 개인의 심리적 현상이라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제재(social sanction)와 연결되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그 치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재와 법적 제재(legal sanction)가 일치하지 않고 방향을 서로 달리 하면 부패는 척결되기 어렵다. 부패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라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문화적 현상이라면 장기적으로 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종 (1993), 부패학, 서울 : 숭실대 출판부
 김주희 (1992),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서울 : 집문당
 백완기 (1982),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 고려대 출판부
 _____ (1984), 민주주의 문화론, 서울 : 나남
 안병만 (1989), 한국정부론, 서울 : 다산출판사
 양성철 (1994), 한국정부론 -역대정권 고위직 행정엘리트 연구-, 서울 : 박영사
 이 이 (1993), 부조리의 정치, -미국의 경험- 서울 : 법문사
 이지훈 (1989), 한국정치문화와 정치참여, 서울 : 형설출판사
 임종철외 (1994),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 : 서울대 출판부
 전수일 (1976), 관료부패론, 서울 : 신학사
 _____ (1984), 관료부패연구 :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Vol. 18

27)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pp. 213~4.